

중용 수양과 교육 동의적 관계 탐색

여상운*

[요약]

유교에서 교육 또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으나, 『중용』 1장에서의 교(教)의 의미는 매우 간명하고 함축적이다. 『중용』 1장에는 천명(天命)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道)라고 하며, 이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천명을 따르도록 닦는 것이 바로 교(教)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 1장에서의 교(教)의 의미는 바로 수(修)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교(教)의 의미는 소위 『천자문(千字文)』이나 『논어』와 같은 경전을 가르친다든지 지식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 등을 깨치고 수양하는 의미이다. 수양은 자기 변화를 말한다. 교(教)의 내면적 확충이 바로 수양이 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수양의 가르침이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 『중용』 1장에서는 수양과 교육은 동의어이다. 나에게 향하면 수양이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향하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 전정한 의미에 대한 재고의 여지 때문이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이다. 그러나 『중용』에서는 다른 사람이 수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지식이나 기술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천명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어서 누구나 깨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중용, 천명, 교육, 교(教), 수양

* 다이텍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yourskys@hanmail.net)
게재신청일: 2022. 05. 03, 게재확정일: 2022. 06. 03.



I. 서론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 철학과 이념, 문화에 대한 공유 또한 포함된 개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A”라는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B”라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책에서는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영역이고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이라고 말하면서 선한 작용과 바람직한 방향을 지적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에서는 선악의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니, 선악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개념이 유교에서는 교육의 영역을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경전을 통한 한자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인성이라고 함은 행동하는 방식의 미한다. 삶의 태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Peters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지만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견주어 인성적 결함을 지녔다고 지적한다.(조연순 외, 1998) 인성교육이란 마음을 기르고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교의 기본은 수양에 있는데, 이러한 수양은 일반적으로 인성교육과 맞물려 있기에, 자연스럽게 유교에서 교육의 영역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절교육에 있어서 유교적인 부분은 주로 전통적인 생활예절에 대한 답습이나 전통 사상과 가치에 대한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에티켓 교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자교육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하여 가능하겠지만, 유교가 조선조 500년의 주체적 이념 사상이었고, 각종 유교 경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점에서 유교를 통한 한자교육은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익하다.

유교에서 교육 또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으나, 『중용』 1장에서의 교(教)의 의미는 매우 간명하고 함축적이다. 『중용』 1장에는 천명(天命)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道)라고 하며, 이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천명을 따르도록 닦는 것이 바로 교(教)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용』 1장에서의 교(教)의 의미는 바로 수(修)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교(教)의 의미는 소위 『천자문(千字文)』이나 『논어』와 같은 경전을 가르친다든지 지식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 등을 깨치고 수양하는 의미이다. 수양은 자기 변화를 말한다. 교(教)의 내면적 확충이 바로 수양이 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수양의 가르침이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 『중용』 1장에서는 수양과 교육은 동의어이다. 자기

에게 향하면 수양이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향하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 전정한 의미에 대한 재고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이다. 그러나 『중용』에서는 다른 사람이 수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지식이나 기술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천명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어서 누구나 깨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가지는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용』이 함축하고 있는 수양론적 구조와 교(教)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용』에서 수양과 교육이 동의적이라는 것을 분석하여, 교육의 참된 본질에 대하여 재고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중용』의 수양론적 구조

『중용(中庸)』은 자사(子思)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중용』도 원래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예기(禮記)』 중의 한 편이었다.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중용광의(中庸廣義)』를 지었고,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가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사서(四書)의 하나로 다루게 되었다. 그 이후에 주자(朱子)에 이르러 『중용장구(中庸章句)』를 지으면서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중용』은 주자에 의하여 총 33장으로 나누어졌는데, 1장은 중용의 전체 사상을 총괄하고 있으며, 2장부터 20장까지는 중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며, 21장부터 33장까지는 성(誠)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1장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교 수양의 본질인 천명(天命)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양 방법으로서의 계신(戒愼)·공구(恐懼), 신독(愼獨), 미발(未發)·이발(已發)의 치중화(致中和)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신독(愼獨)¹⁾

군자가 왜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도(道)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따라서, 군

1) ‘신독(愼獨)’은 사서(四書)에서 『논어』, 『맹자』에는 나오지 않고, 『중용』에 딱 한 번, 『대학』에 두 번 나오고 있다. 『중용』에서는 1장에 나오고, 『대학』에서는 전 6장에 나온다.

자는 그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들리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숨는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은 없고 작은 것보다 더 뚜렷한 것이 없다. 고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삼간다.”²⁾

도(道)는 천명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숙명처럼 천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이고, 각자에게 부여된 천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패배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자기의 분수와 역량을 잘 살피서 그에 맞게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천명을 알든, 알지 못하든 천명은 마치 DNA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도(道)는 잠시도 떠날 수가 없고, 만약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홀로 있다고 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드러나게 되며, 아무리 들리지 않는 곳에 있어도 들리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가 보고 있기에, 군자는 설령 혼자 남더라도 더욱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독(慎獨)은 군자가 되는 수양의 중요한 덕목이다.

2. 중화(中和)

희로애락(喜怒哀樂)이란 인간의 감정이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등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고 한다. 아직 정(情)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性)의 영역에 해당한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등이 나타난 상태는 바로 정(情)이 발로한 상태인데, 정(情)이 발로하였음에도 적절하게 절도에 맞게 잘 나타났다면 이를 화(和)라고 하여, 군자는 항상 중화(中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고 하고, 이미 밖으로 드러나서 감정 작용이 알맞게 된 것을 화(和)라고 한다. 중(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며, 화(和)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중화(中和)를 이루면 천지(天地)가 제자리로 가고 만물이 길러진다.”³⁾

중화(中和)를 이루면 세상만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생명이 적절하게 발육

2) 『中庸』, 「1章」,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

3) 『中庸』, 「1章」,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되는 상태가 된다. 중(中)은 미발(未發)의 상태로써 성(性)의 영역이기 때문에 맹자가 말한 성선설(性善說)과 선단확충(善端擴充)과 관련이 있다. 선(善)하게 살려는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단(四端)의 확충(擴充)으로, 수양의 근본은 정(情)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四端)을 살피고 넓히는 사단확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中)은 앞에서 『대학』에서 살펴본 ‘생각의 틀’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화(和)란 희로애락이 발휘는 하였지만, 적절히 절도에 맞는 상태라는 것이다. 수양의 일차적인 목적은 미발(未發)에 있으나, 항상 미발인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희로애락이 발휘는 하였지만, 그것이 절도에 맞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화(和)라고 한다.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하는 것이다. 화(和)의 수양은 이같이 이미 발휘된 희로애락(情, 생각)을 줄이거나 바르게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이 정(情)이나 ‘생각’이 되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화(中和)의 구분

구분	의미	수양의 방법	수양의 대상
중(中)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미발(未發)	선단확충(善端擴充)	생각의 틀(의(意))
화(和)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이발(已發) (절도에 맞음)	멸정(滅情)	생각(법(法))

따라서 중화(中和)의 관계는 체용(體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中)은 체(體)이고, 화(和)는 그 용(用)이 된다. 체가 중이 되지 못하면, 이것이 발한 화도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발(已發)된 용(用)이 화(和)가 못될 때 그 미발(未發)의 체(體)가 중(中)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양자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중화(中和)가 되며, 이는 도덕 실천의 극치가 된다. 『중용』에서 중화의 덕을 일러 ‘중(中)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和)는 천하의 달도이다. 중과 화에 이르게 하면 천지가 자리 잡히며 만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라고 찬미한 것도 그 때문이다.⁴⁾

3. 시중(時中)

4) 김시준, 『大學·中庸』, 서울: 해원출판사, 1994, 105쪽.

시중(時中)은 유교 수양의 핵심적인 덕목 중의 하나이다. 시중(時中)은 시의적절함을 말한다. 때에 맞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타이밍(timing)이 중요하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시중(時中)이다. 『중용』에는 시중(時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중용(中庸)이고 소인은 반중용(反中庸)이라. 군자의 중용은 군자로서 때에 맞게 하고, 소인의 중용은 소인으로서 (염치도 체면도 돌보지 않고) 거리낌이 없다.” (김시준, 1994)

중(中)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를 뜻하고, 용(庸)은 평상(平常)의 떳떳함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바뀌지 않는 평범한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함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항상 떳떳한 마음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너무 똑똑하면 넘치고, 너무 어리석으면 미치지 못한다.⁵⁾ 순(舜)임금은 크게 지혜로운 자로서,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며 양극단을 피해서 그 가운데로 백성을 다스렸다.⁶⁾ 사람들은 비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도, 중용의 덕을 한 달도 실천하기 어렵다.⁷⁾ 최소한 안회(顔回) 정도는 되어야만, 중용을 골라서 실천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놓곤 하였다.⁸⁾ 중용은 실천하기 정말 어렵지만,⁹⁾ 그래도 군자는 중용의 덕을 곳곳하게 지켜야 한다.¹⁰⁾ 군자가 중용의 덕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시중(時中)이다. 아무리 심오한 이론을 배우고 원리를 익혔다고 하더라도 언행(言行)이 때에 맞춰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시작할 때 시작하고, 그만둘 때 그만두고, 머무를 때 머무르고, 움직일 때 움직이어야 한다. 시간에 맞게 살아야 하고, 계절에 맞게 살아야 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 시중(時中)은 간단한 용어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깊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용』 21장부터는 많은 분량으로 성(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5) 『中庸』, 「2章」, “知者 過之, 愚者 不及也.”

6) 『中庸』, 「6章」,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7) 『中庸』, 「7章」, “人皆曰予知 擇乎中庸而不能期月守也.”

8) 『中庸』, 「8章」, “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則拳拳服膺 而弗失之矣.”

9) 『中庸』, 「9章」,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不可能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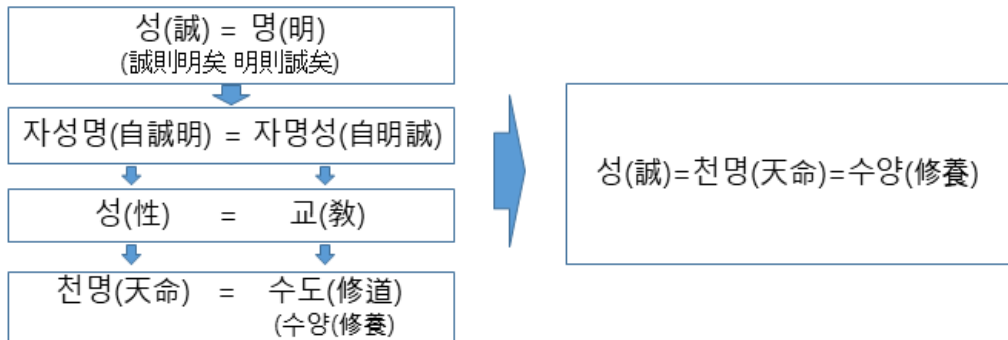
10) 『中庸』, 「10章」, “故君子和而不流 強哉矯 中立而不倚 強哉矯 國有道 不變塞焉 強哉矯 國無道 至死不變 強哉矯.”

4. 성(誠)

성(誠)이란 『중용』의 근본 사상이다. 한자의 의미는 ‘참되게’, ‘진정’, ‘진실되게’ 등 행위를 수식하는 글자로 쓰였으나, 『중용』에서는 인간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추상적 명사화를 통하여 중요한 의미로 격상시켜 놓았다. 『중용』 21장에는 이러한 성(誠)이 결국 수양의 요체로써 천명(天命)과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스러움으로 인하여 밝아지는 것(自誠明)을 성(性)이라고 하고, 밝음으로 인하여 정성스러워지는 것(自明誠)을 교(教)라고 한다.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정성스러워진다.” 11)

위의 내용과 『중용』 1장에 나오는 천명(天命), 성(性), 도(道), 교(教)의 내용을 가지고 그 관계를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이 유추될 수 있다.



[그림 1] 성(誠)의 관계와 구조

성(誠)과 명(明)은 같은 말이며, 따라서 자성명(自誠明)과 자명성(自明誠)은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를 각각 성(性)과 교(教)라고 하였으니, 성(性)과 교(教)가 같고, 『중용』 1장의 내용처럼, 결국 천명(天命)과 수도(修道)가 같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천명(天命)은 결국 수양의 핵심 요목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천명이 곧 성(誠)이고, 성(誠)이 곧 천명이며, 성(誠)이 수양 그 자체이고 수양의 핵심 실천강령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성(誠)은 교(教)를 의미하여 도덕의 근본이요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군자의 덕과 수양을 강조한 『중용』에서 왜

11) 『中庸』, 「21章」, “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이렇게 성(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성(誠)에 지극히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성(性)을 다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성(性)도 다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사물의 성(性)을 다하게 되고 만물의 화육(化育)을 도와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¹²⁾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誠)만이 능히 변화를 줄 수 있고,¹³⁾ 지극한 성(誠)은 신(神)과 같다.¹⁴⁾ 성(誠)은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이루는 것(仁)만 아니라 만물을 완성하는 것(知)이다.¹⁵⁾

따라서, 지극한 성(誠)은 쉬는 법이 없다. 쉬지 아니하니 오래 계속되고, 오래 계속되니 그 효험이 나타난다. 효험이 나타나니 유원(悠遠)하게 되고, 유원해지면 넓고 두터워져서 하늘과 땅과 짝이 되어 유구함이 끝이 없게 되는 것이다.¹⁶⁾

유구함이 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실하다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자연은 이같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이보다 더 성실한 것은 없다. 결국, 인간의 성(誠)이라는 덕목도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닮는다는 뜻이고, 성(誠)은 그 가운데에서 유교의 최고 덕목 중의 하나로서 인간이 갈 길을 말해주고 있다.

Ⅲ. 『중용』에서의 ‘교(教)’의 의미

유교 수양의 본질은 지천명(知天命)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논어』에서, 수양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인(聖人)의 경지는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세상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從心所欲不踰矩)’라는 단계이다. 어떠한 행위를 해도 거리낌이 없으니 개인에게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준은 지천명(知天命)에서 시작하여 이순(耳順)을 거쳐 완성되기 때문에, 지천명(知天命)을 수양의 본질이자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용』 1

12) 『中庸』, 「22章」, “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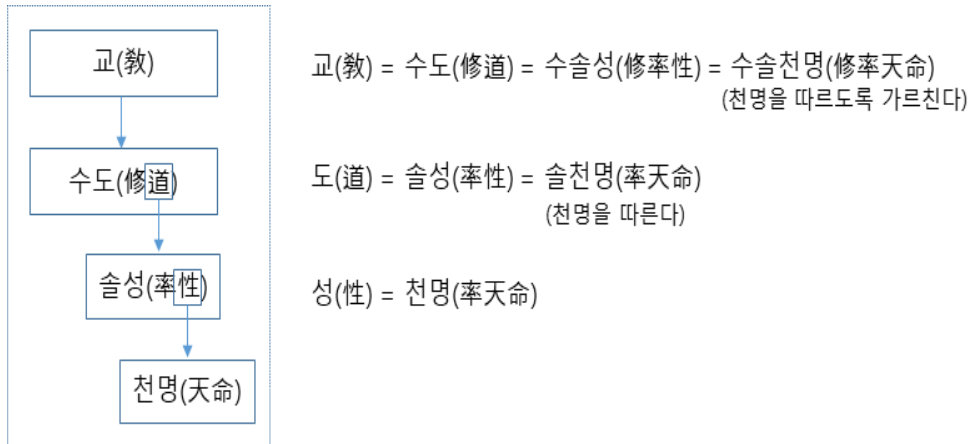
13) 『中庸』, 「23章」, “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 爲能化.”

14) 『中庸』, 「24章」, “禍福將至 善必先知之 不善必先知之 故至誠如神.”

15) 『中庸』, 「25章」, “誠者自成也 而道自道也 誠者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 君子誠之爲貴 誠者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仁也 成物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故時措之宜也.”

16) 『中庸』, 「26章」, “故至誠 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 博厚所以載物也 高明所以覆物也 悠久所以成物也 博厚配地 高明配天 悠久無疆 如此者 不見而章 不動而變 無爲而成.”

장에서는 지천명(知天命)의 수준을 뛰어넘어 천명(天命)을 실천하는 수준(率天命)¹⁷⁾으로 끌어올렸다.



[그림 2] 천명(天命)의 구조¹⁸⁾

상기 그림은 『중용』 1장에 나오는 천명(天命), 성(性), 도(道), 교(敎)에 대한 관계¹⁹⁾를 도식화한 것이다. 천명을 성(性)이라고 하기에 수도(修道)는 천명을 따르는 것(率天命)이 된다. 수도는 곧 수양이므로, 따라서 수양이라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率)으로, 즉 실천을 의미한다. 이는 수양의 실천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논어』 등 기존의 천명과 관련된 수양은 지천명(知天命) 수준으로, 단순하게 자기의 천명을 안다는 뜻이다. 이것을 최대한 확장하여 해석한다고 해도 ‘천명을 깨닫는다’ 정도였다. 그러나, 『중용』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솔(率)은 ‘거느리다’, ‘좃다’, ‘따르다’ 등의 의미로써, 천명을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 천명을 좃고, 따르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즉, 천명대로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과정이다. 유교는 대표적으로 선지후행(先知後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명백하다. 지천명(知天命)은 선지(先知)이며, 솔천명(率天命)은 후행(後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명에 대한 실천력, 즉 천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유교 수양의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용』의 가치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용』 1장에 나와 있는 교(敎)의 의미는 ‘천명을 따르도록 가르친다’ 라는 의미

17) 천명(天命)의 ‘실천’을 말한다. 지천명(知天命)은 천명을 아는 것이지만, 솔천명(率天命)은 천명대로 살아가도록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18) 여상운, 「한강 정구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63쪽.

19) 『中庸』, 「1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이다. 흔히 우리는 교(敎)를 ‘누구를 가르친다’ 또는 ‘무엇을 가르친다’ 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용』 1장에서는 수도(修道)를 교(敎)라고 하고, 천명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敎)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명을 따르도록, 닦고 가르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천자문이나 논어 경전 등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 등을 깨치고 실천하는 수양적인 방법이다. 천명을 따르도록 깨치는 노력을 자기 자신에게 기울이면 그것이 ‘수양’ 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울이면 그것이 바로 ‘교(敎)’ 가 된다. 결국, 자기 변화와 타인 변화의 차이만 있을 뿐, 『중용』에서는 수양과 교육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 현대인은 천명을 따르도록 교육을 받은 적이 따로 없는 것 같다. 학교 교육은 주로 지식이나 기술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가르친다’ 라는 교(敎)의 의미는 『중용』 1장에서는 수양(修養)의 의미가 된다. 수양을 삶의 본질로 두고, 나에게 있어서는 수양적 삶을 실천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수양적 삶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것이다. 왜 수양이 삶의 본질이 되는가? 그것은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갈래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가 수양이다. 인간의 세계는 불완전하고 유한하다. 인간의 세계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가장 큰 이유는 심신(心身)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몸을 가지고 있기에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을 겪게 되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의 세계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일컬어서 ‘고해(苦海)’ 라고 한다. 유교에서는 성정(性情)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본래 인간의 성품은 하늘에서 부여받아서 선(善)하면서도 완벽한데, 욕정(欲情)으로 인하여 성(性)이 가리어져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정(情)을 제거하고 본성(本性)을 회복하는 것이 성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수양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나’ 에서 완전한 ‘나’ 로 가기 위한 실천적 도구이며 불완전한 ‘인간’ 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신(神)’ 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 행위이다. 이러한 수양을 통하여 고통, 불행, 불만족 등의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지락(至樂) 또는 열반(涅槃) 세계에 다다르게 된다. 즉,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 모순이 없는 완전무결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여상운, 2022)

이렇듯이, 수양은 삶의 본질이고, 『중용』 1장에 의하면 교육 또한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수양과 교육은 정확하게 동의어이다. 교육이 수양과 관련될 때만 그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교육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여러 가지 정의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비록 교육이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히 수양과 관련된 가르침이나 체화 등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고 『중용』에서는 설파하고 있다. 즉, 유교에서 말하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날 통용되는 교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의 교육은 좀 더 삶의 가치에 대한 본질적이고 정신적이며, 심성 교화의 목적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교 교육은 오늘날 재평가를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는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시준, 『大學·中庸』, 서울: 해원출판사, 1994.
- 박노홍, 「朱晦庵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동석,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1995.
- 박완식(역), 『性理學이란 무엇인가』, 서울: 여강출판사, 1993.
- 박홍식, 「유교의 본질과 역사, 그리고 미래 전망: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50, 동양철학연구회, 2007. DOI : 10.17299/tsep..50.200705.113
- 배중호, 『韓國儒學史』,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2.
- 성백효, 『大學·中庸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20.
- 신철원 편역, 『論語·大學·中庸』, 서울: 은광사, 1992.
- 심재룡 외,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들』, 서울: 집문당, 1989.
- 양계초·풍우란 외, 『음양오행설의 연구』, 김홍경(편역), 서울: 신지서원, 1993.
- 여상운, 「한강 정구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기동 역해, 『大學·中庸講說』,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1996.
- 이동기·김병우, 「寒岡 鄭逮의 人性教育論」, 『동아인문학』 52, 동아인문학회, 2020. DOI : 10.52639/JEAH.2020.09.52.287
- 이병도, 『韓國儒學史』,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인문과학연구소, 『동서사상의 대비적 조명』,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임동석,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1995.
- 장승희, 「유교 행복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 『윤리연구』 127, 한국윤리학회, 2019. DOI : 10.15801/je.1.127.201912.1
- 정원재, 「조선 전기 수양론」, 『철학사상』 별책(3-5),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4.
- 조연순 외, 「정의교육과 인성교육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1」, 『교육과학연구』 28, 1998, 134-135쪽.
- 최영찬, 「朱子の 修養論」, 『유학연구』 8, 충남대 유학연구소, 2000.
- 최일범, 「유교 수양공부론의 현대적 해석」, 『동양철학연구』 23, 동양철학연구회, 2000.
- 최일범, 「유교의 자아와 수양」, 『유교사상문화연구』 38, 한국유교학회, 2009. DOI : 10.23012/tsctc..38.200912.165
- 한국철학회, 『韓國哲學史 上, 中, 下』, 서울: 동명사, 1992.
- 리엔 칭차오, 『중국의 명저 읽기』, 김용섭·김영옥(역), 서울: 홍문각, 2017.
- 武內義雄, 『中國思想史』, 이동희(역), 서울: 여강출판사, 1992.
- 張岱年, 김용섭(역), 『중국의 지혜』, 경산: 대구한의대학교출판부, 2019.
- 宇野哲人, 『中國思想』, 정상구(역), 서울: 내외신서, 1991.
- 蔡元培, 『蔡元培의 中國倫理學史』, 김용섭·장윤수(역), 서울: 새문사, 1990.
-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6.

[Abstract]

Exploring Consensual Relationships between Discipline and Education shown in “Jungyong”

Yeo Sang Woon(Head of Division, DYETEC Institute)

In Confucianism, education is also meaningful in teaching and changing, but the meaning of education in Chapter 1 of “Jungyong” is very concise and implicit. In Chapter 1 of “Jungyong”, “Cheonmyeong(天命)” is called “Sung(性)”, and it is called “Do(道)” to follow “Sung”, and it is called “Gyo(教)” to cultivate this “Do”. In short, it is education(Gyo) that is practiced to follow the “Mandate of Heaven(Cheonmyeong)”. Therefore, the meaning of education in Chapter 1 of “Jungyong” is in line with “Su(修)”. Here, the meaning of education does not mean knowledge transfer or teaching scriptures such as the so-called “Cheonja” or “Analects”. It means enlightening and cultivating the principles of the world. Discipline is self-change. The inner expansion of an education is to be cultivated, and the teaching of cultivation to others is to be an education. As such, at least in Chapter 1 of “Jungyong”, discipline and education are synonymous. If one goes to oneself, it becomes a discipline, and if one goes to others, it becomes an education.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is that we can reconsider the true meaning of education. The universal definition of education today is the transfer of knowledge or skills. However, in “Jungyong”, it was said that education is to help others cultivate them. It is not important to convey knowledge or skills, but to help them realize their own “Mandate of Heaven(Cheonmyeong)” so that anyone can wake up and live happily.

Key words: Jungyong, Cheonmyeong, Education, Gyo, Discipline